

■ 지방선거 핫코너

박준영 “재래시장 활성화 할 것”

박용두 “농재해보상법 제정해야”

박준영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7일 진도·완도·무안 등 전남 서부권 시장·상가 등을 돌며 “농어촌 지역 재래시장과 상가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상인들을 만나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특히 재래시장이나 영세상가의 경우 더욱 타격을 받고 있다”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용두 민주당 전남지사 예비후보는 7일 전남도청 앞에서 민노당 농민 후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상 기온으로 농가가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농업재해 선포와 농업재해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박 후보는 “실효성 없는 농업재해대책법을 폐지하고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할 것과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도 전체 농산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장환 “기숙형 고교 확대 주력”

홍영기 “행복한 목포” 공약 발표

김장환 전남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전남도내 일반계 공·사립고등학교를 기숙형 고교로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기숙형 고교가 전남에 정착되면 원거리 통학 등에 따른 학습 저해 요인 개선 등이 이뤄져 우수인재 양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영기 민주당 목포시장 예비후보는 7일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 도입 및 단체보험 등 ‘고령층 표심’을 파악하기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홍 후보는 이날 “행복한 목포를 위한 복지 공약”이라는 자료를 내고 “지역 병원과 연계한 주치의 제도도 도입,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강식 “의혹성 사업 해명해야”

이청 “장성군수 무소속 출마”

김강식 민주당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7일 여수시의 의혹성 사업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그 동안 말로만 무성하게 들었던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실체가 낱알이 공개되기를 희망하면서 아울러 제기된 웅천 생태터널, 웅천 인공해수욕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청 장성군수가 7일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군수는 이날 출마의 변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 다시 출마하게 됐다”며 “장성은 지금 지속적인 발전이나, 퇴보나 중대한 갈림길 서 있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과 대책 사업 완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창중 “일자리 창출 시급”

최형식 “포용·상생정치 펼칠 것”

유창중 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7일 “담양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유치 등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담양은 읍·면 별로 1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첨단 무공해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식 민주당 담양군수 예비후보는 7일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직후 ‘화합형 선거대책기구’를 구성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지역 내 갈등의 골을 말끔히 해소하는 등 포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쿵~ 팡! 두차례 굉음 후 함선 기울어”

천안함 생존장병들 “외부 큰 충격...화약냄새 안나” 민·군합조사단 “함정내 기강해이 등 내부 문제 없어” 한미 ‘공동사고조사위’ 구성 폭발음 원인 규명키로

천안함의 생존자들이 7일 침몰원인을 ‘외부 충격’에 의한 것으로 진술하면서 군당국이 분석한 어뢰나 기뢰폭발 가능성에 무게 중심이 쏠리고 있다. 생존자들은 함정의 노후화로 인한 피로과 피나 침수, 압축 충돌 가능성을 일제히 부인하면서 외부충격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조타장 김병남 상사는 이날 국군수도병원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암초에 걸리면 기본적으로 찢어지는 소리가 나고 배가 출렁인다. 그런 상황 때문에 외부 충격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군 합동조사단도 함정내 기강해이 여부를 조사했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생존자 진술과 군당국의 조사를 종합하면 이번 사고는 함정 내부에서 발생했다기보다는 외부 ‘충격’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최원일 함정은 사고 당일 오후 10시32분부터 오후 10시42분 사이 2함대의 22전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뒤에 맞은 것 같습니다. 함미가 아예 안보입니다”라고 다급하게

상황을 전했다. 외부 충격일 가능성은 생존자들이 들었다는 두 번의 폭발음과도 연결된다. 전담장인 김수길 상사는 “안장고 있었기 때문에 ‘쿵, 팡’ 소리를 두 번 느꼈다”며 “처음 ‘쿵’하는 소리는 어디에 부딪힌 줄 알고 제가 바로 전담실로 행했고, 이후의 ‘팡’하는 소리는 약간의 폭음과 전동이 떨어지는 소리가 함께 들렸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도 “생존자 58명 모두 후미 충격과 함께 1~2초간 ‘쿵! 팡~아앙’ 소리가 나고 정전과 동시에 일부 격실에 기름, 해수가 유입되면서 갑자기 우현으로 90도 기울어졌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들은 선체 밑에서 어뢰나 기뢰를 포함한 뭔가가 폭발하면서 일차 폭발음이 들렸고 이어 선체가 두 동강 나면서 2차 굉음이 났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는 폭발음을 발생시킨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미 해군 수상전분석센터와 육군의 물자체계연구소의 전문인들과 우리 군의 폭약·해난사고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7일 오전 백령도 앞 천안함 침수 침해역에 배치된 크레인에서 민간잠수사와 인양 전문인들이 인양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軍 조사 발표...여전한 의문

군 당국이 7일 천안함 침몰 12일 만에 사고 원인을 제외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의문 부호는 여전히 남는다. 이날 조사결과 발표와 생존 장병 회견으로 그간 제기됐던 의혹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는 평이지만 사고 순간 폭발이 두 차례 들렸다는 새로운 팩트가 드러나고 있다고 잡아떼던 사고 전후의 추가 영상이 공개되는 등 일부 의문은 풀리지 않고 있다. ◇“없다”던 TOD 추가영상 공개 = 민·군 합동조사단은 이날 백령도 감시초소에서 촬영한 것이라며 열상감시장비(TOD) 영상을 추가로 공개했다. 군은 지난달 31일 유일한 TOD 영상이라며 40분짜리를 1분20초로 편집, 공개해 비난 여론이 일자 이틀날 곧바로 전체 영상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군은 더 이상의 영상은 없다고 주장하다가 합조단의 주공 끝에 슬그머니 추가 영상을 공개했다.

- ① “없다”던 TOD 추가영상 공개
- ② 백령도 근접...정상임무수행?
- ③ 21시 16분 ‘미상의 소음은’

여기엔 이미 공개했던 영상에는 없던 함미 침몰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당시 상황 구성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의혹은 또 제기된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분리된 함미가 오후 9시22분38초부터 1분1초간 급속도로 침몰하는 장면을 담고 있지만 군의 설명대로 자동녹화된 것이라면 폭발과 함께 함정이 갈라지는 순간도 있어야 정상이라는 주장이 그것이다. 사고 발생 시각부터 영상 시작 부분까지

는 불과 38초의 간격에 불과한데 수동조작이 아닌 자동녹화 시스템이라면 당연히 사고 순간 영상도 있을 것이라 주장이다. ◇백령도 근접, 정상임무수행? = 합조단은 천안함이 평소와 달리 백령도에 근접할 해한 것은 특수임무수행이나 피항이 아닌 정상경비구역에서의 임무라고 밝혔다. 작년 11월 대청해전 이후 해군 2함대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조정된 경비구역에서 작전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군의 초기 설명과의 차이점 등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풍랑이 세기 때문에 일종의 피항 차원”이라고 했고, 해군 역시 당시의 기상이 좋지 않았다고 이를 뒷받침해왔다. 이 때문에 실제로 조정된 경비구역에서 활동하다 피항 차원에서 근접 항해를 했다고 정리되고 있던 이 문제는 오히려 특수임무를 수행 중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21시16분 정적 ‘미상의 소음’일까 = 합조단은 사고 당일 오후 9시16분께 백령도 방공지대에서 ‘미상의 큰 소음’을 청취해 위성통신망으로 삼급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해군 작전사가 이 소음이 천안함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해 오후 9시15분을 상황 발생시간으로 합참에 보고하는 등 혼란이 있었다는 것이다. 군 설명대로 이 ‘큰 소음’이 천안함 사고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련의 상황 속에서 연관된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군은 이 소음의 정체에 대해 속 시원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이름=운명(운명)을 작명 개명하여 운명(運命) 인생을 운전하는 것)을 개척하십시오. 社団法人 星谷傳統文化研究會. 060-227-2356, 010-7671-5623

철학적 구조를 복원 및 연약지반 보강공법의 신개념!! 최위급 컴퓨터공법 국내에서 개발한 지반소속색상법 천하관 공법. 1. 지반조사, 2. 지반보강, 3. 지반관측. 대리점 및 지시모집. T. 063-571-3001-2, HP 011-404-0207.